

지역 소식통

고창군,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150명 입국

고창군은 이달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촌 일손을 도울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15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계절근로자 수급 인원이 확대돼 지역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마친 후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농촌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옷가지를 지원하고, 험터를 마련해 근로자들간 소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고용돼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적합성과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세계 물의 날 맞아 하천 정화 활동 펼쳐

정읍시청 공무원들과 주민, 강살리기정읍시네트워크 등 50여 명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평면 오곡리 동진강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인구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UN)이 매년 3월 22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물의 날 주제를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로 정하고 통합 물관리 성과와 비전을 홍보하고 있다.

이날 정화 활동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의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고 강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약 1톤을 수거하고, 하천 둑 경관을 위해 꽃을 심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업유치

명칭 변경 최종 승인... 완판 신화 나서

고창군이 고창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고창신활력산업단지'로 바꾸고 본격적인 기업유치 완판에 나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도로부터 지난 17일자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명칭 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또 분상마을 진입로 정비에 따른 지구계 면적 조정, 2공구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등도 이뤄졌다.

앞서 민선 8기 고창군은 군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창일반산업단지 이름을 고창신활력 산업단지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군민들은 기존 산업단지 명칭을 과감히 벗어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랐다.

산업단지는 이번 명칭변경을 시작으로 ESG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신한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며 물류수송 최적

지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게 된다. 군은 각종 홍보자료와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곧바로 2공구 부분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내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최종 준공을 이뤄 낼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신활력산업 단지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엔진으로서 자리잡고, 기업과 사람,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창에서 성공할 기업을 모시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도전한국인 관광문화대상' 수상

세계유산도시 관광특화

심덕섭 고창군수가 세계유산도시를 특화한 관광프로그램으로 '도전한국인 관광문화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도전한국인대상 시상식'에서 도전한국인 관광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사)도전한국인본부(회장 조영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런 도전한국인을 발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리더들을 찾아 시상해왔다. 특히 올해 첫 관광문화 부문 수상자로 심덕섭 고창군수를 선정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해 취임 직후 '전체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 관광 1번지'를 핵심 국정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며, 지역문화활



심덕섭 고창군수가 세계유산도시를 특화한 관광프로그램으로 '도전한국인 관광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군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내는 모델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뛰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연계한 시티투어 버스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고, 흥겨운 농악과 관소리 체험으로 고창만의 차별성을 높이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한국도자재단, 도자공예산업 협약 체결

부안군과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은 도자공예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22일 부안군청 소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한국도자재단 서흥식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폭넓은 도자문화 교류와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출생기관으로 국내 도예인의 문화복지와 해외시장개척 등 한국 도자문화산업의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유일 도자전문 기관으로 2년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4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양기관이 도자산업 관련 전시 행사 및 홍보 활동 도자산업 정보 자료의 교환 및 제공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상호교류기로 했고, 부안군은 재단이 올해 12월에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하는 G-세라믹페어에 부안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역도예자작품들도 서울 내들이를 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한국도자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자문화교류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기회로 기대하며 "도자관련 정보 교류 및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한 부안지역 도자산업 상생발전과 청자의 발생지 부안청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용임 씨와 방서희, 김태연 양을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정읍의 숨은 매력 전파할 터"

정읍시, 트로트 가수 김용임 · 김태연 · 방서희 홍보대사 위촉

정읍시가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용임 씨와 방서희, 김태연 양을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는 지난 21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식을 열고 김용임 씨와 방서희, 김태연 양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 속 대중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인기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고, SNS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읍을 알리며 시정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임 씨는 2012년 정읍시와 정읍문화원이 공모한 가사에 곡을 입혀 발표한 노래 '내장산'을 부르며 정읍시와 깊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내장산'은 아름다운 노래말에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내장산 홍보에 효력 노릇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200만 원의 음원 수익을 올리며 정읍시 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트롯'을 비롯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내장산 노래가 널리 불려졌으며, 방서희·김태연 양도 각종 매체를 통해 '내장산'을 열창해 정읍 내장산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방서희 양은 정읍시 용동면 '용동청결방앗간' 외동밖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로 온 동네를 울리고 웃기며 이름을 떨쳐 왔다.

2018년 전국노래자랑 정읍시 편에서 MC 송혜 선생과 '아버지와 딸'을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며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김태연 양은 정읍 동신초등학교에 재학하며 정읍시 국악원에서 국악을 공부했다. 4세에 관소리와 민요를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 춘향극대전 최연소 대상과 박동진 관소리 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카네기 홀에서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200만 원의 음원 수익을 올리며 정읍시 재원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유기농 · 무농약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정읍시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

유기농 ·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득 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 임업인 · 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사업 기간('22. 11월 ~ '23.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

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지다.

지원 단가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의 50%로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작물 60만원이다.

무농약 인증 농가는 비 25만원, 과수 60만원, 기타작물 55만원으로 인증 별 · 품목별 차등 지원한다.

시는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인증 종류 등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안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explaining the benefits of reporting crimes, such as receiving compensation and support. The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d lists of benefits for reporting crimes.